

研究論文

# 1930년대 안재홍의 문화건설론

## —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일제의 강압적 동화정책에의 비판적 대응 —

정 윤 재\*

I. 머리말	IV. 국제공산주의운동 비판과 “국제적 민족주의”
II. “정치적 시련기” 속의 안재홍: 1930년부터 해방직전까지	V. 일제의 강압적 동화정책에의 비판적 대응
III. 1930년대 식민지조선 인식과 민족사 비판: 정치적 평가	VI. 맺음말 하나의 평가

### I. 머리말

1920년대 중반 즈음, 민세(民世) 안재홍(安在鴻, 1891~1965)은 일제의 강압통치 속에서 이에 대응하는 지식인이나 지도자들의 행동유형을 대체로 “최좌익”(사회주의운동), “좌익”(비타협 민족운동), “우익”(자치론자 등을 포함한 타협적 민족운동), “최우익”(친일파), 등 4가지로 구분하여 이해했다.<sup>1)</sup> 이러한 구분은 현대적 의미의 좌우 구분과는 매우 다른 것으로 이때는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여부가 좌우 구분의 주요한 기준이어서 저항하고 투쟁하는 쪽을 “좌”로, 수긍하고 협조하는 쪽을 “우”로 간주했던 것이다

그러나 민세는 “최우익”으로 표현된 이른바 “친일자류”(親日者流)는 사상적으로

\*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정치학 전공

1) 천관우, 「해제」, 안재홍선집간행위원회(편), 『민세안재홍선집1』(지식산업사, 1981), 10쪽. 이후로는 『선집1』로 인용함

그 “본질이 매우 모호 또 번잡”할 뿐 아니라 “정치적 사행심(射倖心)의 노예”이거나 “회색분자(灰色分子)의 관망”을 벗어나지 못하는 기회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과연 엄정(嚴正)한 일계파(一系派)”로 불리울 수 있을지 자못 의심스럽다고 지적하였다. 그래서 민세는 일제에 대한 명확한 태도 표명과 관련하여 당시의 조선엘리트들을 비타협주의자, 사회주의자, 그리고 민족주의자들을 포함하는 “좌파 민족주의”와 총독부와의 협력을 통하여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거나 이른바 정치적 ‘자치’를 명분삼아 활동하던 명망가들을 포함하는 “우파민족주의”로 구분하는 것을 선호했던 것 같다.<sup>2)</sup>

따라서 그가 생각한 “좌익”은 이른 바 사회주의자와 민족주의자가 다 포함되는 개념이었는데 이는 그가 “좌익각파”(左翼各派)라는 용어를 사용한데서도 살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1920년대 중반 이후 민세에 있어서 “좌익”이란 용어는 비타협 반제국주의 협동전선에 참여하는 여러 가지 운동세력들을 통틀어 일컫는 포괄적인 개념이었다.<sup>3)</sup> 그가 신간회(新幹會)의 총무간사(總務幹事)로서 이상재 등 민족진영 원로들 및 사회주의 계열의 인사들과 함께 신간회의 창립과 활동에 핵심적 역할을 했던 것도 그가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비타협민족주의자로서의 자아인식과 결단(決斷)이 분명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민세의 비타협민족주의노선은 오늘날 “문화적 민족주의”(cultural nationalism)로 불리고 있는 이광수 등 동아일보계 민족주의자들의 생각과 행동과 확연히 구별된다.<sup>4)</sup> “문화민족주의자들”은 일제의 문화정치가 제공한 기회들을 국권회복의 바탕을 마련할 수 있는 “호기”(好機)로 간주하고 일본의 식민당국과 협조하여 정치적 ‘자치’의 실천과 더불어 경제, 교육, 문화 각 방면에서의 ‘발전’을 추구하였다.<sup>5)</sup> 그러나 민세 안재홍이 1930년대 동안 《조선일보》에 쓴 많은 논설

2) 안재홍, 「조선인의 정치적 분야」, 《조선일보》 1925년 1월 21일자 사설, 『선집1』, 993-996쪽 참조

3) 김인식, 「안재홍의 신민족주의 사상과 운동」,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7), 13-15쪽 참조

4) 민세는 이들을 “민족적 타협운동”으로 규정하고 이는 일본총독 당국의 “양해 혹은 중용” 아래에서 비로소 있을 수 있었던 것으로 이해했다. 그리고 이들은 “대중이란 흔히 공리적 견지로서 움직이기 쉽다는 약점을 이용할 것”이라면서, 첫째, 철저한 해방으로 가는 일단계로서 타협운동을 내세울 것이며, 둘째, 각 지방에 철도, 항만건설, 교육시설보급 등과 같은 물질적 이익 증진을 미끼삼아 인민들을 끌어들이고자 할 것이며, 셋째, 지사, 과장, 군수, 면장 등에 조선인을 기용하면서 허영심과 명예욕을 이용하여 유능한 인사들을 동원할 것이라고 적나라하게 비판하고 경계하였다. 안재홍, 「조선 금후의 정치적 추세」, 《조선일보》 1926년 3월 16-19일자 사설, 『선집1』, 190쪽

과 기사들 속에도 민족문화운동과 민중계몽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있으나, 그러한 “문화적 민족주의”의 성격과는 뚜렷이 구분되는 견해들이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다. 특히 민세 자신이 수시로 감시와 호출을 당하고 투옥이 반복되는 가운데 민족문화와 역사 및 당시의 시사문제들에 관해 쓴 그의 여러 글들에는 이광수나 최린 등과 같은 지식인들의 그것과는 다른 민족적 위기의식과 사상적, 전략적 프로젝트들을 적잖이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필자는 1930년대에 걸쳐 민세가 발표했던 논설과 기사들을 검토하여 그가 주장하고 실천했던 “비타협적 민력양성운동”<sup>6)</sup> 혹은 “문화건설론”<sup>7)</sup>의 내용과 성격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먼저 우선 신간회 좌절 이후 해방직전까지 민세가 비타협민족주의자로서 행동했던 내용들을 일정한 다음, 1930년대 식민지조선에 대한 그의 정치사적 상황인식을 정리할 것이다. 그리고 대표적인 “민공협동”(民共協同)<sup>8)</sup>의 사례였던 신간회(新幹會)를 해소시켰던 공산주의자들의 ‘분파적’ 국제공산주의운동 및 일제당국의 동화정책에 대한 그의 비판적 대응논리와 전략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 볼 것이다.

5) 이에 대해서는 Michael M. Robinson(저)/김민환(역), 『일제하 문화민족주의』(나남출판, 1990), 242 쪽 및 제6장을 참조. 이 책에서 분석된 “문화적 민족주의”는 물론 일제 치하에서 등장했던 이광수나 최린 같은 인물들이 주동이 되었던 자치론자들의 논리와 행동들을 규정하는 분석개념으로 이는 물론 헤르더의 문화민족주의와는 전연 구별되는 것이다. 각주<37> 참조. 그러나 최근 1920년대 동아일보의 사실 내용분석을 통해 동아일보계 민족주의자들은 일제가 종용한 동화주의적 타협을 거부하고 인도식 ‘독립주의 자치론’에 따른 담론투쟁을 벌였음을 밝힘으로써 동아일보계 지식인들 혹은 이른바 문화민족주의자들에 대한 일방적 매도를 경계하였다. 김용직, 「1920년대 일제·문화통치기」 민족언론의 반패권 담론투쟁에 관한 소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식민지근대화론의 이해와 비판』(백산서당, 2004), 171~194 쪽 참조.

6) 이것은 민세가 3·1운동 이후 10년간의 체험과 정세변화 그리고 특히 신간회의 좌절을 경험한 다음, “초신적 신진에는 분명하면서 실천의 생활에서는 오히려 저열한 구형태에 침체 및 정돈하고 있는 상태”를 탈피할 것을 절규하면서 내세운 “민중운동의 새 전술”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천관우, 앞의 글, 15 쪽.

7) “문화건설론”은 민세가 쓴 「문화건설 사의」(1934. 6)란 기명사설에서 착안하여 1930대에 걸쳐 그의 문화관련 견해들을 “문화민족주의”와 구별, 총칭하여 필자가 만든 한 용어이다.

8) “민공협동”은 신간회운동에서 보듯 민족진영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공산주의자들과 함께 민족통일 전선을 형성하여 공동목표를 추구하는 좌우합작으로 민세 안재홍은 신간회에서의 경험을 살려 해방직후 조선건국준비위원회와 좌우합작운동에서 이같은 방식에 의한 통일임시정부의 수립을 꾀하였다. 정윤재, 『다사리공동체를 향하여: 민세 안재홍 평전』(한울, 2002), 101~108쪽 참조.

## II. “정치적 시련기”속의 안재홍: 1930년부터 해방직전까지

민세 안재홍은 이미 1919년 3·1 독립만세운동 직후 청년외교단사건으로 1차 옥고를 치른 바 있는데, 1927년 2월 신간회의 창립 이후 1931년 신간회가 공식으로 해체되기까지 약 3년여 동안 조선일보의 논설위원으로 있으면서도 일본의 정책과 한민족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사설을 씀으로써 두 차례의 옥고를 더 치렀다.

그리고 그는 1929년 1월 조선일보의 부사장에 취임한 이후에도 계속 사설을 집필하면서 특히 신간회가 점차 힘을 잃어가는 상황을 문제 삼고 당시 조선사회의 엘리트와 대중들이 정돈(停頓)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적으로 지적하였다. 그는 이러한 침체상태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이미 금이 간 독립운동 전선의 통일강화”가 필요함을 계속 강조하는 한편,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비타협적 민력강화운동”에 대한 강한 집념을 보였다.<sup>9)</sup> 그래서 그는 조선일보사의 부사장이 되면서부터 줄곧 생활개선운동, 문자보급운동, 충무공현창운동, 그리고 조선학운동 등을 주창하고 또 직접 간여하였는데,<sup>10)</sup> 이것이 바로 그러한 비타협적 민력강화의 취지와 목적에서 시도된 프로젝트들이었다.

같은 해인 1929년 12월, 민세는 아직 해체되지 않은 신간회의 총무간사로서 광주학생운동에 대한 민중보고대회를 개최하려다 발각되어 다시금 네 번째의 옥고를 치렀다. 그리고 그가 옥중에 있는 동안인 1930년 1월부터 그의 「조선상고사관견(朝鮮上古史管見)」이 《조선일보》에 연재되기 시작했고 1931년 그는 옥중에서 조선일보 사장에 취임하였다.

그는 1931년 4월 10일자 《조선일보》에 만주의 조선인문제에 대한 사설을 집필하여 만주지역에 만주국을 세워 지배하려는 일본의 의도를 간파하고, 만주의 조선동포들에 대한 정치적 지위문제를 제기하고 생활대책 및 교육방침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민세는 1931년 6월부터 당시 중국 뤄순(旅順)의 감옥에서 복역 중이던 신채호(申采浩)의 조선사 관련 원고를 연재하도록 주선하였다. 그는 또 이 해 여름에 주변의 친구들과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에 올라 천지를 바라보며

9) 천관우, 앞의 글, 15쪽

10) 박찬승, 「1930년대 안재홍의 민세주의론」, 정윤재(외), 『민족에서 세계로: 민세 안재홍의 신민족주의론』(봉명, 2002), 386~387쪽

“이 몸이 울어 울어 우뢰같이 크게 울어 망천후 사자되어 온누리 놀래고자” 하는 시조를 읊으며 불운하고 답답한 조국현실에 대해 울분을 토로하기도 했다.<sup>11)</sup>

그러나 일제는 조선일보의 사실과 편집태도를 트집 잡아 민세가 만주동포구호의연금을 유용했다는 혐의를 씌어 다시 검거하였고, 이에 민세는 곧장 조선일보 사장직을 사임할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으로 안재홍은 다섯 번째로 징역 8 개월을 선고받았으나 1932년 11월 미결통산(未決通算)으로 출옥하였다. 이후 그는 나빠진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등산을 다니거나 조용히 독서하며 요양하였다. 그리고 1934년부터는 정인보(鄭寅普)와 함께 정약용의 문집 『여유당전서』의 교열작업에 착수하였으며, 《조선일보》와 잡지 『신조선』에 다산을 소개하는 여러 글들을 발표하기도 함으로써 문화운동 차원의 비타협적 항일활동을 지속하였다.

한편, 민세는 1935년 5월부터 1936년 초까지 조선일보의 객원논설위원으로 「민세필담-민중심화과정」, 「민세필담-속」, 「문화건설 사의」, 「사회와 자연성」, 「기대되는 조선」, 「국제연대성에서 본 문화특수과정론」, 등과 같은 글들을 쓰면서 우리 민족의 문화적 전통을 진지하게 재검토하고 재발견함으로써 일제하의 암흑 속에서도 민족의 활로를 찾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1936년 5월, 민세는 중국 난징(南京)에 있는 민족혁명당의 김두봉과 연락하여 청년독립운동가의 양성을 위해 국내에서 정필성 외 1명의 청년을 중국 항조우(杭州)의 군관학교 항공과에 밀파하려다 발각되어 종로경찰서에 구속당했다. 이것이 소위 ‘군관학교학생사건’이었고 민세로서는 여섯 번째 옥고였다. 그러나 민세는 복역 중 1937년에 보석되어 고향인 평택의 두릉리에 칩거하면서 『조선상고사감』을 집필하기 시작하였다. 이 책에서 민세는 「기자조선고」, 「부여조선고」, 「부루신도」, 「불함문화론」, 「조선상대 지리문화고」 등과 같은 글들을 씌으로써 조선의 역사와 철학 및 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서술을 시도하였다.<sup>12)</sup>

그러나 당시 민세의 역사서술 작업은 오늘날 흔히 보는 걱정거리 별로 없는 ‘편안한’ 학자들의 그것과는 다른 것이었다. 그것은 가족의 불행과 일본 경찰의 계속되는 감시, 그리고 편집 검열과 구속이라는 역경 속에서 진행되는 ‘고난의 행군’이었다. 보석(保釋)으로 고향에 머물 때인 1938년 4월 민세는 경제적으로 곤핍함 속

11) 정운재, 앞의 책, 64~65쪽 참조

12) 위의 책, 68~69쪽 참조

에서 그를 뒷바라지하던 부인 이정순과 사별하였다. 그리고 장남 정용의 결혼식을 며칠 앞둔 1938년 5월, 민세는 흥업구락부사건(興業俱樂部事件)에 연루되어 장택상, 유억겸, 최두선, 변영로 등과 함께 또다시 구속되었다가 3개월 만에 풀려나왔는데 이것이 일곱 번째 옥고였다.

그래서 민세는 장남의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못하는 불행을 겪었는데, 그러나 그는 앞서의 군관학교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이 확정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또다시 서대문형무소 독방에서 여덟 번째로 복역할 수밖에 없었다.<sup>13)</sup> 민세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주야겸행으로 민족사 관련 원고 집필을 쉬지 않고 계속했고, 형을 마치고 난 다음, 1940년부터 고향 두릉리에 와서 지내면서도 줄곧 『조선상고사감』의 집필에 몰두했다. 결국 그는 1941년에 『조선상고사감』을 마무리했고 곧이어 고향에서 계속 지내면서 『조선통사』의 집필을 시작했는데, 이는 그가 만주사변이 터진 이후 “정치로써 투쟁함은 거의 절망의 일이요, 국사를 연찬하여 써 민족정기를 불후에 남겨놓음이 지고한 사명임”<sup>14)</sup>을 자임(自任)했던 자신의 뜻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었다.

이후 민세는 조선어학회(朝鮮語學會)가 주관했던 국어사전 편찬사업에 수정위원회의 한 위원으로 참여하였는데 이 사실이 일본 경찰에 의해 발각되어 1942년 12월 그는 다시 체포되어 함경남도 흥원경찰서에 수감되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자 아홉 번째의 옥고였다. 이 때 일경은 민세의 발목에 기둥나무같이 커다란 족쇄를 채우고 영하 20도의 추운 감방에 가두었는데 이것으로 민세는 대장에 냉상을 입어 후일까지 늘 속이 안 좋아 고생했으며 코끝에 동상이 걸려 빨갱게 변하기도 했다. 이 뿐 아니라 그는 심한 정신적 고문까지 당했지만 그는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처하여 주변으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당시 일경은 조선어학회의 이극로 간사장도 체포하였는데, 잔인하게도 민세로 하여금 그를 심문하게 하면서 제대로 대답하지 않으면 그의 뺨을 때리라고 강요했다. 뺨을 치자니 아무리 강요된 상황이라도 친구 간에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요, 안 때리자니 자신이 고문을 받아야 할 것이라 진퇴유곡이었다. 그러나 민세는 정색을 하며 “나는 죽으면 죽었지 저 친구의 뺨을 칠 수가 없소” 하고 의연한 태도로

13) 위의 책, 70쪽 참조

14) 위의 책, 71쪽

일경의 요구를 거절했던 것이다.<sup>15)</sup> 1943년 3월 민세는 불기소처분으로 풀려나와 하향했지만, 감방에 갇혀있는 동안 비참한 조국현실과 자신의 무력함에 절망하여 차라리 한 많은 고국을 떠나버리고 싶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기도 했다.<sup>16)</sup>

1944년 봄, 민세는 몽양 여운형을 그의 고향집으로 찾았다 거기서 민세는 몽양으로부터 독립을 준비하기 위해 지하운동을 함께 하자는 요청을 받았지만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거절하였다. 그가 1944년 말쯤에 대종교(大宗教)의 경전중 하나인 『삼일신고』을 해설한 『삼일신고주』를 탈고한 것을 보면, 이 때 민세는 정치활동보다 역사 및 철학연구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싶어 했던 것 같다.<sup>17)</sup> 그리고 제2차 대전이 끝나가는 동안 일제는 민세와 같은 협력거부 민족지도자들을 회유하며 대화숙(大和塾)이나 도청에서의 강연을 요구받았지만 일부러 수업을 기르고 다니면서 나이가 들어 건강이 안 좋다고 핑계 대며 거절하였다.

몽양과 함께 총독부의 요인들과 만나 전후의 사태수습과 유혈방지대책을 협의하기도 하였지만, 그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일본의 패망(敗亡)이 멀지 않았음을 강조하면서 전후 치안유지에 협력하는 조건으로 “민족자주(民族自主), 호양협력(互讓協力), 마찰방지(摩擦防止)”의 3원칙을 제시하며 몽양 및 자신에게 “일정한 언론과 행동의 자유”를 허용할 것을 제의하는 등 당당하게 협상에 임하였다.

그리고 1945년 5월 하순에 총독부 측은 다시 사태수습에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차후에 일본의 공작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민족대회소잡”이 필요함을 언급하면서 냉담하게 대응했다. 그래서 민세는 전쟁이 끝나 일본이 항복할 때까지 일본에 의해 계속해서 감시를 받았을 뿐 아니라 암살위협까지 받아 좀처럼 서울의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고향에도 내려가지도 못한 채, 서울에서 숙소를 여기 저기로 옮겨 다녀야 했다.<sup>18)</sup>

1930년대 초부터 해방이전의 식민지시대를 이렇게 감시와 투옥이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 지냈던 민세는 1935년과 1936년 사이 조선일보의 객원으로서 민족정체성 유지를 위한 문화운동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실과 시평을 자주 썼고 이후로

15) 이희승, 「민세선생을 추모함」, 『선집』, 441 쪽

16) 정윤재, 앞의 책, 71~72쪽 참조

17) 위의 책, 77쪽 참조

18) 위의 책, 81~82쪽 참조

는 주로 고향에 칩거하면서 역사와 철학관련 저술에 집중하였다.

그래서 다음 절에서부터는 그가 객원으로 썼던 글들을 중점 분석하면서 그가 1930년대 식민지조선의 정치적 상황을 어떻게 인식했고, 동시에 한민족의 총체적인 정치사를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신간회 해체 전후부터 줄곧 제기되었던 공산주의계열의 “몰민족작”(沒民族的) 국제공산주의 노선과 소위 “황민화”(皇民化)를 앞세웠던 일제의 강압적 동화정책에 직면하여, 그가 각각 어떠한 논리와 대책으로 대응했는지를 살피기로 할 것이다.

### III. 1930년대 식민지조선 인식과 민족사 비판: 정치적 평가

민세는 그가 정열을 기울여 활동하던 신간회가 공산주의자들의 책동으로 해산되면서 매우 커다란 심적 고통을 받았다. 당시는 일제의 강압적 식민통치가 문화정치(文化政治)로 그 얼굴만 바꾸어 집요하게 기획되고 추진되면서 한민족 소멸의 목표로 간단없이 내닫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그러나 민세는 스스로 한 사람의 언론인으로 계속해서 논설을 집필하며 현안들에 대한 자신의 주견을 발표하였다.

그 자신이 공식적으로 논설위원이나 책임 있는 부사장 혹은 사장직에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아무런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아니하여도 큰 흠이 되지 않을 처지이었는데도, 스스로 “객원”(客員)으로 나서 《조선일보》에 기명논설을 쓴 것이다. 이는 자신의 “산문기자나 혹은 논객의 생애”도 다 끝난 처지였지만 점점 다가오는 일제의 “동아대침략(東亞大侵略)”을 심각하게 고민했던 민세의 상황인식과 사명감에서 비롯된 ‘투쟁’이었으며<sup>19)</sup> 그것은 그대로 그 자신이 권하고 추진했던 “비타협적 민력양성운동”이기도 했다. 그래서 이 절에서는 1930년대 당시의 식민지조선에 대한 민세의 상황인식과 한민족사 전반에 대한 정치적인 평가가 어떠했는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민세는 1931년 9월에 쓴 한 사설에서 당시 조선사회에는 “민중적 또는 민

19) 안재홍, 「민세필담-민중심화과정」, 『선집1』, 470-471쪽 참조.

족적 다대수의 선택된 의사를 집중 수립 및 구현할 조직체(組織體)<sup>20)</sup>가 존재하지 않음을 비통하게 생각했다. 그는 “정치적 실재는 관념적인 시경(詩經)과 달라서 최고의 이상경(理想境)이나 최후적인 목표를 저 건너에 보면서 항상 일상적인 실천이해(實薦利害)에서 그 당면적 경중(輕重)과 완급(緩急)을 저울질하면서 통제적인 정책의 구현을 파악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sup>21)</sup>이라 생각하였다.

그러나 1930년대의 식민지조선에는 그러한 실천적 기능과 책임을 맡아 민중을 이끌어나갈 주체세력이 없었다. 다만 동아일보계열의 인사들이 자치를 통한 민족개조를 내세우며 총독부당국과 긴밀한 친선, 협조관계를 유지했고,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이념중심의 국제주의적 연대투쟁이 가장 효과 있는 항일운동인 것처럼 여겨졌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민세는 당시의 조선사회가 직면한 어려움을 “3난”(三難)이라 하여 다음 세 가지로 지적하였다.

첫째, 자신의 이해를 돌보지 않고 희생돌진(犧牲突進)하는 것이 존경받을만한 것이긴 하나, 무계획적이고 비과학적이며 비구체적인 “반사적 급진(急進)”의 존재는 전체적 국면에 중대한 장애가 된다. 둘째, 조선의 지식인들이 갖가지 곡절과 수난을 감수해서라도 “시국광구(時局匡救)”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과감하게 나서지 아니하고 몸을 사리어 “안전한 땅에만 골라 다니려”하는 보신주의적(保身主義的) 처신을 하고 있다. 즉, 민중을 수난에서 구하고자 떨쳐 일어서는 “존귀한 지도자”가 부재하다. 셋째, 조선인이 근대이래로 격심한 국제경쟁에서 일단 실패하여 식민지로 전락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그 문화적 정치적 부흥의 도장”을 밟아 나아가고자 하나 일본 총독부 관리들이 이를 허용하지 않고 목전의 이해관계에 좌우되는 중우적(衆愚的)인 여론만을 따라 통치하고 있어 조선의 미래를 담보(擔保)할 “정치의 신기축(新基軸)”이 만들어질 가능성과 기회가 없다<sup>22)</sup>

다음으로 민세는 일제의 한민족말살을 의도한 동화정책으로 초래된 민족정체성의 위기로 그야말로 “역사적 난국(難局)”을 당한 지경에서 한민족 구성원 각자는 각별히 “냉정하고 또 치열함”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일제의 강압통치에 처한 조선민족에게는 정치적, 사회적 투쟁보다도 우선 당장(當場)은 “문화(文

20) 안재홍, 「조선인과 의사통제 문제」, 《조선일보》 1931년 9월 2일자 사설, 『선집1』, 429쪽.

21) 위의 글, 『선집1』, 430쪽.

22) 위의 글, 『선집1』, 430-431쪽 참조.

化)에로의 정력집중(精力集中)”<sup>23)</sup>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일제의 강압정치 속에서 당시의 침체된 조선사회를 일컬어 “정돈(停頓)하였으되 생장(生長)하는 [조선사회] 아니 생장하는 정돈”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비록 당장은 낙오되고 후진된 상태에 있지만은 조선민족은 “우량한 문화민족”으로서의 가능성과 능력을 보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sup>24)</sup> 즉 민세는 일제 강압통치 속에서 식민지조선이 비록 낙후되고 정체되었다 할지라도 반만년 이어져온 민족문화가 계속 성장하여 자라게 함으로써 장래의 희망을 기약하는 것이 당연한 일라고 확신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민세가 우리의 역사와 현실을 맹목적으로 긍정하거나 옹호(擁護)했던 것은 아니다. 비록 한민족이 식민지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한민족의 정치사적 경험과 당시 한민족이 감당해야만 했던 현실적인 처지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냉정하게 평가하고 비판하였다. 즉, 한민족이 역사적으로 “허구한 세월 선진적인 문화민족의 기록”을 지녀, “현대 동방문화(東方文化)의 연수(淵藪)처럼 되어있는 지나문화(支那文化)”의 형성과 발전에 조선인들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기여했으며, “일본문화(日本文化)의 근간부(根幹部)에 있어서 그 조선적(朝鮮的) 기본요소가 선명”하게 배어있다. 그러나 한반도를 둘러싸고 전개된 “급격한 국제풍진(國際風塵)”에 조선은 비통하게도 “체사자(替死的) 방호자(防護者)의 구실 밖에 하지 못하여 오늘날 “목하에 도리어 후진낙오자의 침윤한 경지에서 신음(呻吟)하고”있다고 보았다.<sup>25)</sup>

한민족이 고려시대에 몽고인들의 침략에 수백만이 생명을 버리면서 60여년을 저항하여 버티어낸 것은 “세계사상(世界史上)에 있어 둘을 찾기 어려운 조선인 특유(特有)의 강용(強勇)한 본질”을 증명한 사례다. 그 외에 흉노, 연, 한, 위, 선비, 수, 당, 요, 금, 왜구 등의 침략으로 시련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민족만은 그대로 남아있는 한편, 한민족을 침략했던 민족들은 지금 다 사라지고 그 존재가 흔적조차 안 보이는 것은 특기할 만한 사실이다. 다만 한민족은 고대 이래 중국 송화강, 백두산, 요하, 들을 포괄하는 광대한 지역에 정치적, 지리적 불

23) 안재홍, 「민세필담 민중심화과정」, 『선집』, 477쪽

24) 위의 글, 『선집1』, 479쪽.

25) 위의 글, 『선집1』, 482쪽.

리함 때문에 통일민족국가(統一民族國家)를 건설하지 못했고, 조선시대에는 그 영토적 권역을 한반도라는 조그마한 “소천지(小天地)에 국척(國蹠)하여 스스로 진취(進取)의 길을” 막았던 역사적 사실들을 비판적으로 평가했다.<sup>26)</sup>

요컨대, 민세는 어느 외국인의 말을 인용하면서 “조선인은 실로 청명(聰明)하고 강유(剛柔)를 겸한 인민(人民)이어서 만일 정치가 그 마땅함을 얻으면 장래 반드시 유위발전(有爲發展)의 날이 있을 것”이지만, 1930년대 중반 현하조선의 형편은 반대로 정치가 마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하치않은 인민(人民)”으로 전락해 있다고 인식했다.<sup>27)</sup>

그리고 조선의 과거사에 있어서 그가 생각했던 마땅치 못했던 정치란, 첫째, 고대에 있어서 고구려가 한족(漢族)과의 대립에서 패배하여 “민족 대통일의 운동과 거대한 의도”가 좌절되었던 것이고, 둘째, 국제적 접촉과 교류가 빈번하였던 신라 및 고려시대와 달리 조선왕조의 “쇄국고립(鎖國孤立)과 존명자안(尊明自安)의 정책”으로 국제적 경쟁력이 약화되고 백전항쟁(百戰抗爭)의 기백이 소실된 것이다. 그래서 민세는 고려시대 인종 당시 묘청, 정지상 등 서경천도(西京遷都)와 칭제건원(稱帝建元)으로 영속자주할 것을 도모했던 “독립자존파(獨立自尊派)”와 신라 통일기 이후 “존화자굴(尊華自屈)”의 정책을 내세웠던 김부식 등의 “한화파(漢化派)” 사이의 역사적인 일대 충돌이 불행하게도 후자의 정치적 승리로 결말지어진 것이야말로 조선역사 “일천년래(一千年來)의 최대사건”이었다고 규정했던 단재 신채호를 각별하게 다시 언급했던 것이다<sup>28)</sup>

#### IV. 국제공산주의운동 비판과 “국제적 민족주의”

1930년대에 들면서 일제의 동화정책과 공산주의자들의 국제주의운동에 직면했던 안재홍은, 무엇보다도 “세계문제(世界問題)의 일반은 민족문제(民族問題)의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고 먼저 지적함으로써 어떠한 경우든 민족차원의 문제제기와

26) 위의 글, 『선집1』, 485쪽.

27) 위의 글, 『선집1』, 484, 501쪽.

28) 위의 글, 『선집1』, 486-491쪽 참조.

문제해결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래서 가까이는 만주(滿洲)에서 수난을 당하고 있는 조선동포의 어려움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조선인은 “민족애(民族愛)”의 차원에서 심각한 반성의 필요가 있으며 잠자고 있는 “전조선적(前朝鮮的) 민족애”를 일깨워 민족의 불행을 떨쳐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29)</sup>

또 이른 바 “민족적(民族的)인 것”이 역사적으로는 이미 때늦은 19세기적 유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식민지조선의 현실에서 “아직 그 선양(宣揚) 및 순화(純化)를 요하는 당면(當面) 중요한 현안(懸案)인 것을 맹상(猛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30)</sup> 그러면서도 민세는 “세계인류는 다 동포”이며, “인류애의 고조(高調)는 현대 문명의 한 큰 추진의 방향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즉, 세계인류를 사랑한다는 것이 그 “관념에서는 좋되 실제에서는 너무 추상적”인 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각 민족 각 국민이 세계적인 또 인류적인 처지에서 공존(共存)과 호애(互愛)를 목표로 하는 데에 현대인의 진면목(眞面目)이 있는 것”임을 상기시켰다. 따라서 “존귀한 역사적 생산물”인 민족애의 처지에 굳건히 서면서도 “국제주의적(國際主義的) 인류애의 대도로 나아감”이 현대인이 취할 바라고 정리하였다.<sup>31)</sup>

더군다나 어느 한 민족이 쇠망하거나 낙후된 처지에 있을 때 이를 극복하고 생존하기 위한 “투쟁적인 역량”을 가지려면 반드시 동류의식, 연대의식, 그리고 정열에 의해 그 구성원들의 의식이 심화되거나 단일화 되는 “민족주의적 세련과정(洗練過程)”을 치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공산주의자들처럼 관념적이고 “공식론적(公式論的)인 국제주의(國際主義)”로 민족의 처지와 민족문화를 고려하지 않거나 혹은 무시하는 국제적 연대운동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들은 반드시 민족에게 “심상치 않은 불행(不幸)”을 자초할 것이라고 비판했다.<sup>32)</sup>

또한 민세는 1935년 6월에 쓴 “세계로부터 조선애”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서양에서는 영국 문호 H. G. 웰즈가 그의 소설 『미래의 형상』에서 말했던 이른 바 “세계일가(世界一家)의 이상(理想)”이 오래전부터 일상화되어 있었고, 또 오늘날

29) 안재홍, 「병화 만난 재만동포」, 『선집1』, 440, 445쪽 참조

30) 안재홍, 「국제연대성에서 본 문화특수과정론」, 『선집1』, 565-566쪽.

31) 안재홍, 「허구한 동무-민족애는 존귀」, 『선집1』, 446쪽 참조

32) 안재홍, 「국민주의와 민족주의-간과치 못할 현하경향」, 『선집1』, 462쪽.

“목하(目下) 비약(飛躍)하는 인류문화는 싫거나 좋거나 세계일가(世界一家)의 시대를 향하여 달음질치는 것”이라 인식하였다

그리고 조선민족과 같이 “국민적으로 역경(逆境)에 빠진 민족” 으로서는 그러한 역경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해 하루바삐 세계가 하나로 통일되는 시기가 도래하기를 갈망할 수도 있겠지만, 첫째, 객관적인 정세로 보아 세계일가의 시대가 그리 쉽게 우리의 “입에 맞는 떡”으로 등장할지는 알 수 없는 일이고, 둘째, 아무리 불리한 처지의 후진민족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의식적인 각고의 노력 없이 그저 세계일가의 시기만 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일종의 거지심라”에 다름 아니어서 세계일가사상에 민족의 미래를 기대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그는 궁극적으로 일원화의 방향으로 전개되는 국제정세 속에서 각 민족은 그러한 세계적(世界的) 맥락과 상호작용하면서 자주적이고 독창적으로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종 모순과 문제점들은 이론적(理論的) 논쟁차원에서가 아니라 쫓대 있는 실천과정(實踐過程)에서 극복되어 궁극적으로 건강한 일도성(一度性)이 역사적으로 성취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up>33)</sup>

이같은 맥락에서 민세는 민족적으로 최악의 처지에 있는 당시의 조선에서 “현실을 정관(正觀)치 못하는 관념적(觀念的) 경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공산주의자들에 대해, 현실성 없는 마르크스주의적 세계통일론과 그에 따른 국제주의 정치운동보다도 “세계(世界)로부터 조선(朝鮮)에 재귀(再歸)하는 문화적 작업”이야말로 민족이 처한 정치적, 국가적 모순을 극복하는 현명한 방도라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과거 조선시대에 관념적인 친명(親明) 사대주의론에 사로잡혀 조국과 민생을 수호하지 못하고 국가적 대계(大計)를 그르쳤음을 다시 언급하면서 공산주의자들이 “역사과정이 최악(最惡)한 경우에는 다만 문화운동(文化運動)인 개량적 공작(工作)에도 스스로 도피하지 않는 것이 진지 혈성인(血性人)의 책무(責務)”<sup>34)</sup>임을 적극 환기시켰다.

그리고 민세는 공산진영이 민족의 처지와 민족문화를 무시하고 부인하는 경향을 보인 것에 대해 조선일보에 기고한 기명논설들을 통해 그러한 주의·주장들이 논리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잘못된 것임을 일일이 지적하였다. 당시 국제공산주의운

33) 안재홍, 「민세필담 속」, 『선집1』, 508~509쪽 참조

34) 위의 글, 『선집1』, 510쪽.

동과 깊숙이 연관을 맺으며 활동하던 국내 공산주의자들은 스스로 당대조선에서 가장 “급진적인 선구자로 자임(自任)”하면서 “조선적” 혹은 “민족적” 전통(傳統)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민족운동세력들을 “소부르적 배타주의(排他主義)” 혹은 “반동적(反動的) 보수주의(保守主義),” 또는 “감상적(感傷的) 복고주의(復古主義)” 등으로 매도하며 비난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민세는 그같은 단정적인 비난을 정면으로 부인(否認)하였다. 즉, 민세는 아직 후진(後進)에 처해있는 국민이나 민족의 경우, 민족주의적 이니셔티브가 얼마든지 진보개혁적이고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충분한 의의(意義)를 지닐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예컨대, 구한말의 갑신정변(甲申政變)이 미약했고 성공적이지 못하여서 비록 여러 가지 면으로 평가되고는 있지만, 그것은 “청국(淸國)의 봉건적(封建的) 제국주의(帝國主義)에 반항하여 조선적(朝鮮的)인 무엇을 의도하는 진보적(進步的)인 것인 한편으로 세계적(世界的)인 진취를 추구 했던 의미 있는 시도였으며, 또한 그것은 메이지유신(明治維新) 당시 일본국민들이 스스로의 자각을 통해 “개국진취(開國進就)”라는 세계에의 개방을 열렬하게 추구했던 것을 “표본삼아 추진되었던 거사(擧事)”였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러한 민족적 차원의 시도들이 국제사회에 의미 있는 적지 않은 파동(波動)을 일으킬 경우가 있고, 오로지 특수한 민족적 처지에서 “다만 진정한 재각성(再覺性)의 단계로만 되어 다음날의 세련된 생활집단으로서의 일정한 문화적 탄력을 함축하는 데에 그치는” 경우가 있을 뿐인 바,<sup>35)</sup> 민세는 식민지조선에서의 민족문화적 운동들은 바로 후자와 같은 사례에 해당할 것으로 간주하고 그 현실적 필요성과 장기적 효과를 강조하여 변론하였던 것이다.

요컨대, 민세는 20세기 현대 인류문화의 특징을, 첫째, 각 민족이 “세계적 대동(大同)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둘째, 각 민족이 이러한 세계차원의 국제주의적 경향 하에 있으면서 “오히려 각각 각자의 민족문화(民族文化)로서 순화(純化), 심화(深化)하려는 의욕(意慾)”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 등 두 가지로 판단했다. 그리고 이러한 시기에 있어 각 국민들이 취해야 할 “가장 온건타당한 태도”는 “민족(民族)으로 세계(世界)에, 세계(世界)로 민족(民族)에 교호(交互)되고

35) 안재홍, 「미래를 지나 금일에, 『선집』 511~512 쪽 참조

조합(調合)되는 민족적 국제주의(民族的 國際主義) —국제적 민족주의(國際的 民族主義)”<sup>36)</sup>의 원칙에 따르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그는 어느 국민이나 국가든 국제사회의 떳떳한 주체로서 서로 왕래교통하며 주고받고, 다투고 배우는 것으로 이러한 과정이 연속되는 속에서 각각의 향상과 발전이 있고 획득(獲得)과 성장(生長)이 있는 법이므로, 설령 인류의 문화가 급속하게 진전되어 머지않은 장래에 “국가와 민족의 계선(界線)을 철폐하는 시기”가 온다 할지라도 “금일(今日)에 오인(吾人)은 우선 세계(世界)의 일민족(一民族)으로서의 문화적 순화향상(純化向上)의 길을 강맹(強猛)하게 걸어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sup>37)</sup>

그래서 민세는 세계의 모든 독자적인 민족들이 하나의 가족처럼 교류하고 통합되어야 한다는 당위(當爲)를 생각하면서도 그러한 “세계적 당위차원”으로부터 조선[현실]에”로 귀래(歸來)하여 그러한 당위 때문이라도 당장 식민지상태에 있는 조선의 불행을 극복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또 미래에 모든 인류의 공통(共通)된 비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미래의 비전”을 지나[조선의] 현금에서 조선의 한계적 상황을 진지하게 재인식하는 지혜로움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다시 말해서, 민세는 시간과 공간차원에서 미래의 지구사회에서 기대되는 “세계적 대동(世界的 大同)”에의 인류공통의 희망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비전은 각 민족들이 정상적으로 상호 왕래 교통하는 가운데 자주적인 문화적 성숙(成熟)을 바탕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논지에서, 민족주의든 국제주의든 두 차원 사이의 상호작용의 주체인 각 민족들의 뜻대 있는 인식과 선택에 기초해서 대내외적

36) 위의 글, 『선집1』, 512쪽.

37) 이러한 민세의 생각은 헤르더(J. G. Herder, 1744~1803)의 문화민족주의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헤르더는 민족을 특정지역에 자리 잡은 구체적인 존재인 동시에 언어, 예술, 관습 등을 포함하는 형이상학적 문화의 범주에서 이해되는 대상으로 간주하였으며, 자신만의 고유한 문화를 보유한 각 민족만이 전 인류의 조화로운 발전에 공헌한다는 명제를 근간으로 민족주의와 국제주의의 조화 혹은 양립 가능성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헤르더의 문화민족주의는 민족주의에 있어서 문화적 요소를 부각시켜 민족주의의 정치적 측면을 새로운 차원으로 전환시켰고, 문화가 단순히 비정치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조직 원리의 유기적 구성부분임을 입증하였다. 헤르더의 문화민족주의에 대해서는 박의경, 「헤르더(Herder)의 문화민족주의: 열린 민족주의를 위한 시론」, 『한국정치학회보』, 제29집1호(1995), 331~352쪽 참조.

처방을 강구하는 “국제적 민족주의” 혹은 “민족적 국제주의”가 당대 식민지조선이 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sup>38)</sup>

민세는 또 이제까지의 인류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을 바탕으로 생각할 때, 단위민족의 발전과정에 대한 과학적인 명제는, 각 민족은 일정한 “정치문화적(政治文化的) 공작(工作)”을 겪으면서 자유로운 혹은 “자동적(自動的)인 국제화과정(國際化過程)”을 성취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sup>39)</sup> 그래서 문화의 국제화 혹은 다원적인 발전은 단계적이고도 인위적인 어떤 종류의 강압적(強壓的) 혹은 관념적(觀念的) 조치들보다도 민족마다 각기 다른 구체적인 모멘트, 즉 발전단계에서 목전의 시공간적(時空間的) 현실(現實)에 적절히 들어맞는 방식이 적용되고 응용되면서 성취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컨대, 같은 불교라 할지라도 스리랑카의 불교와 버마의 그것이 다르며, 서역과 몽고의 불교는 또 중국의 그것과 다르며, 일본의 불교는 또 조선과 중국의 그것과 다르다. 그리고 기독교 역시 마찬가지다. 같은 기독교라 할지라도 북구라파의 기독교는 다분히 철학적이되 남유럽지역의 기독교는 우상숭배적 성격이 강하다. 그 뿐 아니라, 유럽의 “브르주아 데모크라시”도 그 실용적 양태와 방식이 서로 다르다. 영국의 팔러먼트(Parliament)와 미국의 콩그레스(Congress)가 그 조직운영면에서 동일하지 않으며, 독일의 라이히스타크(Reichstag)나 프랑스의 샹브르 데 데뽀뽀(Chambre des Deputes) 역시 영국이나 미국의 그것과 다르다. 또 스위스의 연방의회인 분데스페르잠퉁(Bundesversammlung)은 스페인의 연방의회인 코르테스(Cortes)와 다르다. 소련의 두마(Duma)는 과거 제정러시아의 그것을 새로이 개편한 것이다. 이렇게 각국의 의회제도도 각 민족이나 국가의 문화적 배경과 정치사적 경험에 따라 제각각 다른 것이다.<sup>40)</sup>

인류의 역사발전과정을 볼 때 지구상의 여러 나라들이 동일한 문화적 배경과 동일한 사회적 단계를 거쳐 사회경제적 발전의 일정한 단계에 이르면 어김없이 일정유형의 사회문화적 단계를 나타내는 것이니, 이것이 인류문화의 보편적 모습이고, 역사발달의 국제성이다. 그러나 나라마다 그 속도가 빠르거나 완만하며, 그 적

38) 안재홍, 「미래를 지나 금일에」, 『선집』, 512 쪽

39) 안재홍, 「국제연대성에서 본 문화특수과정론」, 『선집1』, 559 쪽

40) 위의 글, 『선집1』, 564-564쪽 참조

용방법에 있어서 어떤 나라는 노련하나 다른 나라는 서툴고 조술(粗率)하다 이것은 각 나라마다 “그 풍토 인정 역사전통”이 결코 기계적으로 균일할 수 없음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국제성(國際性)은 천하일률(天下一律)이 아니요 특수성(特殊性)은 고립유아(孤立唯我)가 아닌 것이나” 현대문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국경이 해소되고 세계가 축소되어 장차 세계는 단일평준(單一平準)의 지구사회로 전환된다 할지라도, 문제는 그러한 비전의 추상적인 내용에 있지 아니하고 “상대적 실천과정에서의 시간과 방법, 그 상호관계의 적응 여하”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실정치적인 과제로서의” 민족문화차원의 제운동과 노력들은 “이 땅에 있어…아직 그 선양 및 순화를 요하는 당면 중요한 현안(懸案)인 것”을 깊이 성찰하고 명심하여야 한다.<sup>41)</sup>

그리고 “무릇 정치문화적 생존노력은 일순간의 연극이나 한 차례의 우연한 교전으로 끝날 수 없는 중대한 사업일진대, 이러한 작업은 식민지조선의 “전면(全面)과 전선(全線)에서, 때와 계제(階梯)에 따라 백도공진적(百道共進的)”으로 한결같이 추진되어야 하는 시대적 과제다. 이는 조선민중이 “각 길로서 한곳에 42)라는 말의 뜻에 따라 조선인 각자는 각각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대로 힘써 나름대로 정치문화적 공작을 실천하여 험난하고 아득해 보이는 정치적 자주독립의 목표를 하나씩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임을 표현한 것이다.<sup>43)</sup>

## V. 일제의 강압적 동화정책에의 비판적 대응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세는 과거와 당시의 조선 역사를 좇대 있고 책임감 있는 정치리더십의 빈곤이란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주권을 상실한 채 일제의 강압정치로 시달리고 있는 식민지조선에서의 민족문화운동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일관되게 변론하였다. 즉, 어느 국민이나 민족도 그 자연풍토적 토대(土臺)

41) 위의 글, 『선집1』, 565-566쪽 참조

42) 1930년 신년사의 주제였음

43) 안재홍, 「국제연대성으로 본 문화특수과정론」, 『선집1』, 567-568쪽 참조

와 역사적인 경험(經驗)과 문화전통(文化傳統), 그리고 국제적(國際的)인 제세력(諸勢力) 및 문화와의 교섭이 상호교차(相互交叉)되고 영향(影響)을 주고받는 가운데 정치적 성취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sup>44)</sup> 어떠한 경우든 조선인이 그 전통(傳統)과 습속(習俗), 생활방식(生活方式), 등 민족문화(民族文化)를 향상(向上), 순화(純化), 정화(淨化), 양양(昂揚)시키고자 하는 것은 “합리(合理)한 일”이고 또 그러한 과정을 거쳐 “사회적(社會的) 정치적(政治的) 멈춤없는 진경(進境)[즉, 정치적 독립]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천하(天下)의 공도(公道)”이어서 내외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찬성할 일이라고 주장했던 것이다.<sup>45)</sup>

그러나 민세는 결코 한민족의 역사 속에서 드러난 문화적 특징들을 아무런 비판적 성찰 없이 옹호하거나 미화하지 않았다. 그는 주요 언론인이었고 당대의 대표적인 지식인으로서 민족문화운동을 주장하고 실천해야했기 때문에 도리어 한민족이 그 문화적 특성으로 지닌 결함과 문제점들을 신랄하게 들춰내었다.

그는 우선 우리 민족의 문화적 특성 혹은 민족성 차원에서 “우리 민족성의 병폐(病廢)”를 무기력함, 불관용함, 관념적임, 지속성이 부족함, 그리고 비조직적임, 등 다섯 가지로 지적하였는데, 이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46)</sup> 중국 대륙 쪽으로 세를 떨쳤던 고구려, 백제, 발해, 일본에까지 높은 수준의 문화를 전했던 신라, 그리고 거란족을 물리치고 원나라에 대해 끈질긴 저항을 보였던 고려의 역사를 볼 때, 조선인들의 무기력(無氣力)함은 결코 그 “천질(天質)” 즉 변하지 않는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청과 일본에 의해 시달리고 패망했던 조선왕조 시대의 열악(劣惡)했던 정치사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음으로 지적할 수 있는 병폐는 불관용(不寬容)인 바, 이는 곧 “중화적(中和的) 태도를 잃음”으로 “협동과 호애가 부족한 바”이다. 그 결과 완고한 자기주관에 매달려 현실과악이 미비한 채 정확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여 결국 비실용주의적 또는 비실천적인 과오에 빠지는 것이다. 이러한 불관용의 사례들은 고려 말 조선왕조 창건시기와 이후의 조선시대에 파당간의 권력투쟁들에서 자주 목격되었던

44) 안재홍, 「민세필담-민중심화과정」, 『선집』, 481 쪽 민세는 해방된 직후인 1945년 9월에 낸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민우사)에서는 이러한 그의 역사관을 “종합적 유물사관”이라 불렀다

45) 안재홍, 「조선인의 처지에서」, 『선집』, 464 쪽

46) 안재홍, 「민세필담-민중심화과정」, 『선집』, 491~501쪽 참조

바이다.47)

한민족의 또 다른 병폐는 “관념적(觀念的)인 비현실성(非現實性)”으로, 특히 정치적 지배자들이 “공리사쟁(空理私爭)에 휘말려 조선왕조의 분열과 패망이 재촉된 것도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었다. 예컨대, 최영경, 정개청 등 수많은 선비들이 “도륙(屠戮)의 화(禍)”를 입고, “성웅” 이순신이 불과 몇몇 사람의 필설(筆舌)로 “나수국문(拏囚鞫問)의 악(厄)”을 당하며 현실감각이 남달랐던 정치가 최명길의 “수호방란(修好防難)의 책(策)”이 사대(事大)의 명분만 앞세우던 반대파들에 의해 좌절되었던 것, 남이와 김덕령이 모두 그 “무용(武勇)이 출중(出衆)하였던 탓으로 모두 형살(刑殺)당한 것, “고풍달식(高風達識)”했던 박지원과 홍대용이 스스로 세속과 타협하지 않음으로써 “일생(一生)을 감가(轉軻),” 즉, 때를 만나지 못해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또 정약용과 이가환 등은 스스로 “우국경세(憂國經世)의 선각자(先覺者)”였던 이유로 “파소쇄란(破巢碎卵)의 상란(喪亂)”에 빠졌었고, “태서(泰西)의 문물을 수입하여 민국도현(民國倒懸)의 악(厄)을 풀기”를 모의했던 흥분주와 남종삼은 “복종절사(覆宗絕祀) 위노위비(爲奴爲婢)하는 참화(慘禍)”를 당하였다.48)

마지막으로 민세는 우리 민족의 또다른 심대한 병폐를 “지속성(持續性)의 부족(不足)”으로 꼽으면서, 이와 함께 비조직적(非組織的)이고 불협동적(不協同的)인 결합이 병존한다고 지적했다. 즉, 조선인들에게는 하나의 목표를 내세우고 “거기에 전력량(全力量)을 집중(集中)하여 그 필성(必成)을 기하는 관철(貫徹)의 힘이 매우 부족하고” 언제나 겨우 “신(新)으로부터 신(新)에의 무기획(無企劃)한 사시랑이 여행에 바쁜 것” 같다고 비판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병행되는 큰 결함이 바로 “조직적 협동력이 매우 빈곤한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지난 근세 수백년간 지속되었고, 현대의 각 개인 차원에서도 목격되는 바이다. 그리고 그 오랫동안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아직 제대로 된 “조선유학사”(朝鮮儒學史)의 저작이 없으며, 기독교(基督敎)가 수입된 지 5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능력 있는 종교지도자가 없다. 그리고 민족주의, 공산주의, 무정부주의 등 각종 정치적 이념과 노선성의 변동과 전환이 매우 잦은데도 “아직 각계에 존경할 권위자(權威者)”가 매우 드물다. 그러나 민세는 이상과 같은 병폐들

47) 위의 글, 『선집1』, 491-493쪽 참조

48) 위의 글, 『선집1』, 495쪽.

이 원래 우리 민족이 선천적으로 지녔던 숙명적인 “결핍(缺點)”이 아니고 다만 우리가 “생존의욕에 포만한 적극적인 혈성(血性)의 기백이 부족한” 가운데 역사를 이어오며 형성된 “역사적 산물”임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민세는 우리민족이 “시운 개척(時運開拓)의 일념(一念)”을 가지고 노력하면 그 실천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이러한 병폐들을 극복 청산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sup>49)</sup>

그러나 특히 강압적인 동화정책 하에서 한민족의 존망이 걸린 정체성 위기를 인식했던 민세는, 한편으로 식민당국으로 하여금 민족고유문화의 유지를 허용하는 정책으로 나갈 것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암울(暗鬱)한 환경 속에서도 “신생조선(新生朝鮮)”에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시련을 견뎌내며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그는 우주만물(宇宙萬物)과 천하(天下)의 대소사(大小事)는 모두 “시공(時空)에 의연(依然)치 않음”이 없고, 인류역사에서의 각종 성패흥채(成敗興替)가 결국은 “모두 환경과 역사와 거기에 생동하는 인과(因果)에 의하여 귀결(歸結)되는 것이니, 이것을 무시하고 인위(人爲)의 힘으로 함부로 그 사이에 독단(獨斷)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일제(日帝)의 강제적(強制的)인 한민족말살정책을 비판했다.

그리고 역사상 알렉산더 대왕이나 시이저 그리고 징기스칸과 나폴레옹 황제가 무력으로 세계의 통일을 꿈꾸었으나 모두 “망상(妄想)으로” 그쳤으니 현명한 정치가는 이같이 “이세(理世)에 어그러지고 시대에 역행(逆行)하는 역자”를 피할 것이라고 충고하였다. 동시에 국가나 민족 사이의 관계에서 정치적·군사적으로는 급속한 계기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문화적 공작”에서는 급진적인 인위(人爲)가 가장 절제(節制)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민족(民族)이란 “역사적(歷史的)으로 또 문화적(文化的)으로 동일(同一)한 정신적(精神的) 존재인 것을 상호에 의식(意識)하는 사람들의 총체(總體)”로 정의했다. 그리고는 민족이란 아주 “냉철(冷徹)한 자연적(自然的) 존재(存在)”라서 민족과 민족 사이의 관계는 강압적

49) 위의 글, 『선집1』, 495~497쪽. 한민족의 이같은 결점의 지적은 그 내용에 있어서 이광수가 민족 개조를 내세우며 지적했던 것들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민세가 그러한 결점들이 잘못된 정치사적 경험 등과 관련하여 역사적으로 후천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인식하고 또 그것은 장차 노력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교정될 수 있다고 인식한 반면, 이광수는 한민족의 단점들은 그 장점들과 함께 “내적 본성”으로 파악했고 민족적 전통보다는 서구적 가치관에 따라 개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광수, 「민족개조론」, 『개벽』 3권 5호(1922), 18~72 쪽 참조

인 단속과 억지로서가 아니라 “공동(共同)한 이해관계(利害關係)에 의한 이지상(理智上)의 유대(紐帶)에 의해서만 일정한 지속을 하는 것이요, 다만 인위적으로 이것을 억지로 할 수 없는 바”라고 강조했다.

그래서 민세는 “원주민족(原主民族)의 습관제도를 존중히 하는 것이 현명한 정책”이라고 강조하면서, 일제 식민당국에 대해서 각 민족의 고유문화 및 현대문화를 존중하여 원주민들이 스스로 그들의 문화를 양양(仰揚)케 하면서 따로이 그들의 구하는 정치적(政治的) 무엇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 위정자의 현명한 태도요 정책이라고 주문했던 것이다.<sup>50)</sup> 또 민세는 영국이 그들의 식민지였던 캐나다의 퀘벡주에서 프랑스 계통 주민들의 언어 습속 및 취미 감정 등을 그대로 용인하고 존중함으로써 대영제국의 번영을 도모하고 지속시키는데 기여하였음과 반대로 비스마르크의 독일제국이 폴란드의 포젠(Posen)주와 러시아 제국이 폴란드에 대해서 19세기 중엽 이래 “전연 독단적인 동화정책(同化政策)”을 폈으나 결국 실패하고 말았던 역사적 사례들을 지적함으로써,<sup>51)</sup> 일본이 식민지조선에 대한 민족말살적인 동화정책을 중단할 것을 기대하고 요구하였다.

민세는 이렇게 식민당국을 향하여 역사적 사례를 밝히거나 논리적인 설명을 가하면서 식민지하에서 허덕이는 한민족이 고유문화를 지키고 계승하면서 생활하고 활동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강조하였다. 그런 한편 민세는 당시 조선인들 사이에 마침 높아진 향학열(向學熱)은 병술국치(丙戌國恥) 시기와 기미독립운동(己未獨立運動) 시기의 그것에 이은 제3차의 의미 있는 향학열로 “문화건설(文化建設)의 도정에 있어” 매우 반가운 현상이라고 지적하면서<sup>52)</sup> “신생조선”(新生朝鮮)의 미래를 지향하는 새로운 몇 가지의 교육프로그램들을 제안했다.

첫째, 무엇보다도 교육의 “민중화(民衆化)”와 “생활화(生活化)”가 절실하다. 민중화란 교육이 일부 지도층의 최고 전문적 지식의 전수만이 아니라 “마땅히 일반 시민대중인 전남녀층에 확대 보급하여야 할 것”을 일컫는다. 그리고 생활화란 초중등학교 교육을 강화하고 그 내용이 실사구시 및 지행합일의 원리에 따라 이론적

50) 안재홍, 「사회와 자연성」, 『선집1』, 537~539쪽 참조

51) 위의 글, 『선집1』, 541쪽.

52) 민세는 1936년 당시 불어 닦친 한민족 사이에서의 높은 교육열을 경술국치 시기의 제1차 향학열 기미독립운동 당시의 제2차 향학열 다음의 “제3차 향학열”이라고 규정하여 그 역사적 의미를 평가하였다. 안재홍, 「문화건설 사의」, 『선집1』, 514~515, 518쪽 참조

지식교육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인생 생활에서의 실제 적용의 기량(技倆)을 양성함”을 핵심으로 하는 것이다.

민세는 산업화에 성공한 독일에서의 실업교육, 덴마크가 농업입국하는데 큰 힘이 되었던 그룬트비히에 의한 국민고등학교 제도, 러시아의 학교·공장 연계교육 시스템 등을 예로 들면서 산업진흥과 농공상에 기여할 교육의 실시를 강조하였다. 그는 초등학교 6년제 의무교육(義務教育)의 실시를 말하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초등학교 4년제 의무교육과 2년제 간이실업학교(簡易實業學校) 혹은 직업학교(職業學校)를 연계시키는 방법도 좋을 것으로 제안하였다.<sup>53)</sup>

둘째, 특히 과학 기술 및 관리 분야의 “간능(幹能)” 즉 유능한 간부를 양성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조선시대의 인재교육은 주로 도학(道學)과 문장(文章) 중심으로 이루어져 실생활(實生活)과는 멀었고, 경술국치 이후에는 대부분 법률, 정치, 문학, 경제 등 인문학(人文學)이 교육의 주류를 이루었다. 그 결과 당시 건축토목(建築土木)의 대공사에서는 물론 간단한 석공(石工) 일이나 채소농업에서도 조선인 기술자(技術者)는 안보이고 대부분 중국인이나 일본인들만 일을 맡았다. 기술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조선인들은 겨우 지게꾼과 달구지꾼들로 막노동일이나 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늦은 감은 있으나 이제라도 서둘러 “과학기술(科學技術) 및 관리(管理)의 간능(幹能)”이 “조선청년의 지향목표”로 되어야 한다. 간단히 말해서 당시 조선사회는 각 분야의 전문가, 기사, 기수, 및 능력 있는 행정적 사무가등이 매우 필요할 것이니 이에 조응하는 실사구시적(實事求是的) 인재교육이 실천되어야 한다.<sup>54)</sup>

셋째, 여자교육(女子教育)을 확대 보급하여 “모성(母性)의 문화적 완성”<sup>55)</sup>을 기함으로써 민족문화(民族文化)를 지키고 흥성케 하여 민족을 구하여야 한다. 민세에 의하면 “현대조선 교육의 최대한 결핍(缺陷)은” 학식만 가르치고 인간생활의 규범교육(規範教育)에는 너무 소홀하다. 그리고 건강한 사회문화의 온상(溫床)이어야 할 가정은 대부분 문화적 고갈상태에 빠져있다. 조선여자들은 본래 총지(聰慈)하고 재간이 있었지만, 유교적 남존여비(男尊女卑)의 풍조와 경제적 곤핍 때문에 그러한

53) 위의 글, 『선집』, 516~520 쪽

54) 위의 글, 『선집1』, 520~521 쪽

55) 위의 글, 『선집1』, 531 쪽.

자연스런 본성이 묻히고 대신 “우악스럽고 미련스런 모성(母性)”의 소유자로 그 이미지가 바뀌었다. 오늘날 조선의 경우 경제적 부의 증대가 중요한 사안임에 틀림없지만, 동시에 원래부터 총명하고 재주 많은 조선여성들이 지니고 있던 전통적인 “성정(性情)의 함양(涵養)”과 전수(傳授)가 이루어져야 한다

조선의 신문화와 조선적(朝鮮的) 정조(情調)의 생활문화는 우선 조선의 가정과 그 안방에서부터 복돋우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포함한 여자일반의 교육이 그 내용과 시설 면에서 심화(深化)되고 확충(擴充)되어야 한다. 자녀교육의 주책임자인 어머니들을 무학(無學) 또는 천학(淺學)의 상태에 버려두고 2세 어린이들의 명랑하고 정상적인 성장을 바란다는 것은 큰 모순(矛盾)이다. 따라서 마땅히 그들의 교육을 쇄신하여 그들로 하여금 어린이들을 착하고 귀엽게 기르도록 하여 “신생조선의 여명(黎明)”을 만들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sup>56)</sup>

요컨대, “현대조선에는 실로 민중적으로 모성도(母性道)의 재건을 열ᄃᆞᆫ(熱擧)하고 있다. 무릇 민중의 미래는 어린이가 지배하고, 어린이의 품위(品位)는 모성이 지배하니, 현하에 모든 력(力)과 권(權)을 잡은 자들은, 그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여성들의 교육으로써 모성도(母性道)를 재건하고, 썩 신생조선을 대망하는 생존상(生存上)의 공작(工作)이 있어야 할 일이다.”<sup>57)</sup>라고 민세는 주장했던 것이다.

## VI. 맺음말: 하나의 평가

이상에서 검토해본 바, 언론인 민세 안재홍의 1930년대 글쓰기와 사회적 행동들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3가지 특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1930년대의 민세는 조선이 일본제국주의의 문화정치 및 강압적인 동화정책에 직면하여 민족의 정체성 유지와 그 지속적 존재 여부에 있어 심각한 위기(危機)에 처해있다고 인식하고, 일제에 대한 비타협적 노선을 취하였다. 그리고 이러

56) 위의 글, 『선집1』, 524-530쪽 참조

57) 위의 글, 『선집1』, 532쪽. 민세는 이렇게 모성교육을 통한 민족정서의 보급 및 자녀교육의 향상을 꾀하여 민족을 암흑에서 구한다 하여 스스로 “母性求族論”이라 표현하였다. 위의 글, 『선집1』, 524쪽.

한 비타협적 노선은 일제의 정책에 대한 비판적 글쓰기와 민족정체성 보존을 위한 사회계몽운동으로 표출되었고, 이로 인해 그는 수시로 투옥되고 계속적으로 감시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민세의 문화건설론 혹은 민력양성운동은 당시의 공산주의자들과 달리 비폭력적(非暴力的)이었으며,<sup>58)</sup> 일제의 문화정책을 민족의 ‘자차와 근대적 개조를 이룰 수 있는 호기(好機)로 여기고 일제와 협력하여 그 실천을 추구했던 이른바 “문화민족주의자들”과 달리 저항적(抵抗的)이었다.

둘째, 민세의 비타협적 문화건설론은 헤르더의 문화민족주의적 문제의식에 입각했던 것으로 궁극적으로 한민족의 정치적 독립과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었다. 주권이 유린되고 민족말살의 식민통치가 자행되고 있는 상황인 한, 단위 민족의 즉각적인 정치적 독립을 우선시하는 “정치적 민족주의”와 단위민족의 문화적 정체성 및 유지를 중시하는 “문화민족주의”는 각각 모두 나름대로의 전망과 전략으로 정치적 독립을 추구하는 면에서 서로를 구별하기란 쉽지 않다.<sup>59)</sup> 민세의 경우, 그 스스로 이른바 민족자치를 위한 정치활동을 하지 않고 민족적 정체성 유지와 발전을 위한 글쓰기와 저술, 그리고 사회계몽운동에 일관되게 집중했지만, 정치적 주권이 상실되고 민족전통의 말살이 획책되는 상황에서 민세의 이러한 활동이야말로 역사의식이 동반된 또 다른 형식의 정치행위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민세는 세계일가사상 혹은 사해동포주의(cosmopolitanism)가 문화적 다양성과 정치적 자율성을 바탕으로 추구될 때 지구사회의 건강한 공동체화가 가능하다는 견해에서 한민족말살을 목표로 하는 일제의 동화정책을 비판하였다. 그리고 민세는 민족문화와 전통, 그리고 현재에 처한 입장 등을 경시하고,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강령과 정책에 ‘맹종하는’ 국내 공산주의자들의 주장과 행동을 비판하고, 대신 오늘날의 열린 민족주의론과 상통하는 “국제적 민족주의”론을 제시하였는

58) 물론 이광수나 최린 등 이른바 자치론자들도 간디를 인용하며 비폭력을 말하였으나, “식민당국과 대항하는데 위축되어 있으면서 간디의 민족주의와 그 (비폭력적인) 전략을 실천한다는 말은 기만에 지나지 않았다.” Michael Robinson(저)/김민환(역), 앞의 책, 214쪽.

59) 이같은 견해는 최근의 한 연구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박의경, 「민족문화와 정치적 정통성 루소와 헤르더」, 『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3호(2002), 51~70쪽 정윤재 「일제하 한국 지식인들의 저항과 식민지 근대화론」,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식민지근대화론의 이해와 비판』, 195~202쪽 참조.

바, 그의 이러한 주장들은 오늘날 지구화시대에도 통용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참고문헌

- 김용직, 「1920년대 일제 ‘문화통치기’ 민족언론의 반패권 담론투쟁에 관한 소고」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식민지근대화론의 이해와 비판』. 서울: 백산서당, 2004.
- 김인식, 「안재홍의 신민족주의 사상과 운동」.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 박의경, 「민족문화와 정치적 정통성」. 『한국정치학회보』 제36 집 3 호, 2002, 51~70 쪽
- 박의경, 「헤르더(Herder)의 문화민족주의」. 『한국정치학회보』 제29 집 1 호, 1995. 331~352 쪽
- 박찬승, 「1930년대 안재홍의 민세주의론」. 정운재(외), 『민족에서 세계로: 민세 안재홍의 신민족주의론』. 서울: 도서출판 붕명 2003.
- 안재홍선집간행위원회(편), 『민세안재홍선집』(1, 3). 서울: 지식산업사, 1981, 1991.
- 이희승, 「민세선생을 추모함」. 안재홍선집간행위원회(편), 『민세안재홍선집』. 서울: 지식산업사, 1991.
- 정운재, 「일제하 한국 지식인들의 저항과 식민지 근대화론」.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식민지근대화론의 이해와 비판』. 서울: 백산서당 2004.
- 정운재, 『다사리공동체를 향하여: 민세 안재홍 평전』. 서울: 한울, 2002.
- 천관우, 「해제」. 안재홍선집간행위원회(편), 『민세안재홍선집1』. 서울: 지식산업사, 1981.
-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식민지근대화론의 이해와 비판』. 서울: 백산서당, 2004.
- Michael M. Robinson(지)/김민환(역), 『일제하 문화민족주의』. 서울: 도서출판 나남 1990.

● 투고일 : 2005. 3. 4.

● 심사완료일 : 2005. 5. 25.

● 주제어(keyword) : 안재홍(An Chae-hong), 조선일보(*Chosun Ilbo*), 문화건설론(Cultural Building Initiatives), 문화정치(Cultural Policy), 국제공산주의운동(Communist international), 동화정책(Assimilation Policy), 비폭력 저항(Nonviolent Resistance)